



■ '고은 시인의 날' 광주 찾은 고은씨

"내가 '만인보'를 광주비엔날레 주제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광주에 헌정한 것입니다."

1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제정한 '고은 시인의 날'을 기념해 광주를 찾은 고은 시인은 "5·18 30주년을 맞아 '만인보'를 완간했고 때마침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예술 총감독이 주제로 쓰겠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술을 전공한 딸, 부인과 함께 4시간여 동안 전시장을 둘러본 고은 시인은 "연작 시집 '만인보'를 통해 표현된 인간 세계의 외부와 내면을 여러 작품을 통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면서 "놀랍고 미적인 깊이를 주는 작품이 아주 많다"고 소감을 밝혔다.

"'만인보'는 1980년대 생사의 경계에서 싸이 돌아 우리겨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망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30년간 혼신을 다해 쓴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과분한 찬사를 해주었고, 명망있는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로까지 채택되어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시인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는 "마침 오늘이 유네스코가 정한 '시인의 날'인데 광주비엔날레와 인연이 돼 이름까지 걸 수 있게 돼 큰 영광이다"며 "이번 비엔날레가 평소 좋고 관람객도 많이 찾는다 소리를 들으니 여러모로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만인보 27~30권을 80년 5월 당시 광주의 희생자와 시민, 학생, 남녀노소, 구두담이, 고아, 유족 등 민초들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만인보'를 마치고 광주비엔날레와 함께할 수 있는 우연을 얻었지만 비엔날레가 5월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의 미술운동이기에 어떤 '필연성'마저 느끼게 된

다"고 밝혔다.

지난 시기 우리겨레의 인간 군상을 연작 '만인보'를 통해 표현했던 고은은 이제 우리의 미래상을 어떤 식으로 그려낼까.

그는 "인간이 만든 사회는 조화로 이뤄진 듯 하지만 사실은 갈등으로 이뤄졌다"며 "한반도는 갈등의 첨예한 현상이고 가장 큰 갈등인 분단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향후 우리겨레의 나아가 갈 대안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역설한다.

"우리겨레는 한반도권 영내의 머무르지 말고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고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허구가 아닌 실제로서 아시아를 어떻게 구현해 볼 것인가가 현재 고심하고 있는 화두입니다."

“만인보는 빌려준 것 아니라 광주에 헌정한 것”

“세계 곳곳의 찬사 과분 비엔날레 주제 채택 정말 기뻐다”

차기작과 관련, 그는 "아직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이르다"며 "분명한 것은 한시도 북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노벨문학상 수상 실패에 대한 질문에는 "왜 사냐면 웃지요"라는 식구를 인용하며 "뒤라 할말이 없다. 내

가 받을 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짧게 대답했다.

고 시인은 오후에는 관람객들을 상대로 한 작가 토크 사인회에 참석한 뒤 가족과 함께 경기도 안성 자택으로 돌아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지역 문화예술육성’

문화지원협 4일 토론회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의장 오광수)는 호남권 지역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오후 2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 주제는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 협력형 사업 전개 방안'이다.

김지원(문화연대 사무국장), 김석범(제주문화재단 부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박규호(전남매일 문화부장), 노경숙(무등현대미술관 학예실장)씨가 토론에 나선다. 문의 062-670-57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달려라! 그루세’

광주평화연극상 수상



2010 광주평화연극제에서 서울극단 '봄'의 '달려라! 그루세'가 평화연극상을 수상했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최영화) 주최로 지난달 24~31일까지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이번 연극제에는 광주연극협회의 '다시래기', 극단 '파란'의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등 모두 5편이 공연됐다.

'달려라! 그루세'는 독일의 유명 희극 작가 브레히트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연극으로 고아가 된 총독 아들들을 대신 키운 허녀 그루세와 아들들을 되찾으려는 총독부인이 재판관 앞에서 벌이는 신경전을 경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평화연극상 시상식은 이번이 세번째로 극단 초인의 '창녀가 된 소녀와 나무꾼', 일본극단 '호크케이'의 '이 길은 언젠가 걷는 길'이 수상했다. 한편 이번 연극제 참가작인 '다시래기'는 오는 17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사포로 극장 축제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연주 17일 광주서 듣는다

차세대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로 각광받고 있는 손열음이 광주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지난 2008년 정음성곡제음악제에서 연주하는 등 협연 무대를 가진 적은 있지만 독주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오후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이 영재 발굴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한 '금호영재 콘서트' 첫 주자로 발탁되면서 음악계에 데뷔한 손씨는 2005년 루빈스타인 국제 콩쿠르에서 3위를 수상함으로써 전 세계 음악계에 이름을 알렸다.

뉴욕 팔하모니, 바르샤바 팔하모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한 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연주자에게 수여하는 '금호음악인상' 제 1회 수상자로 선정돼, 재단으로부터 장학금과

항공권 등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또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를 통해 자신만의 색채를 선보였으며 2007년부터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로 활동하고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올베 탄생 200주년을 맞은 슈만과 쇼팽의 곡들이다. 슈만의 '아라베스크 C장조 작품 18', '관타지 C장조 작품 17', 쇼팽의 '발라드 2번', '소나타 3번 B단조'를 만날 수 있다.

손씨는 만 16세 영재입학한 한국 예술종합학교에서 김대진 교수를 사사했으며, 현재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아리에 바르디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 티켓가격 전석 3만원. www.usquareculture.co.kr.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에게 집이란

사진작가 안희정 2~8일 신세계갤러리

현대인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 먼길 걸어 찾아간 고향집의 따스한 불빛이거나, 늦은 밤 홀로 밥을 먹으며 바라보는 삭막한 아파트의 벽일까.

사진작가 안희정씨가 2~8일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집을 소재로 한 전시회를 연다.

이 갤러리가 젊은 작가를 선정해 후원하는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초대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 안씨는 'Cubesewing scape'를 주제로 사진과 설치가 결합된 이색 작품을 선보

인다. 집 안팎을 사진으로 찍어 천에 인쇄한 뒤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엮어 집의 형상(큐브)을 만들어 냈다.

또 완성된 집 형상을 사진으로 찍은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거대한 창과 문으로 이뤄진 이들 집은 현대인의 삶의 기록이며, 평온과 휴식을 찾아가는 고단한 과정이기도 하다.

안씨는 "입체 작업을 곁들이는 것은 평면적인 사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이며,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각자의 집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과 광주에서 2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국제젊은사진작가'전 등 2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eumsoojang Hotel. Features: www.geumsoojang.com,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부담 없습니다. 4-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편안합니다. 한땀 한땀 직접 케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의 주요 고객.

Advertisement for moviehelic. Features: 영화에 빠지다, MEGABOX, CINUS. 상무점, 하남점.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색깔있는 영화상객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